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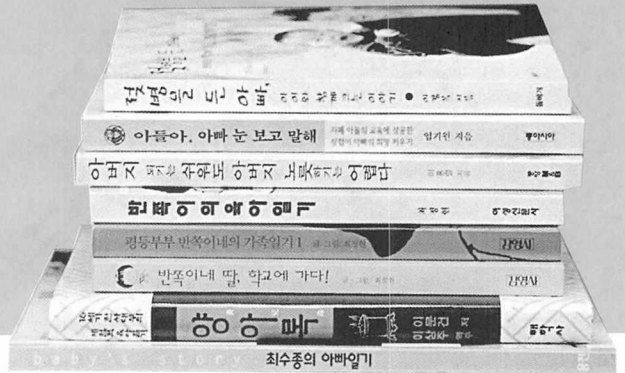
“젓병 든 아빠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버지가 쓴 육아일기 잇따라 출간돼

아버지가 쓴 육아체험기의 출간이 늘고 있다. 육아체험기의 잇단 출간은 육아에서 아버지의 몫이 커지고 있는 증거다.

육아일기·에세이·역경 극복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아버지의 육아체험기에 대한 반응은 아직 낮은 편이다.

성 역할분담에 관한 고정관념이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육아 체험을 담은 책이 활발히 출간되고 있다. 남자가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우리 실정에서는 아직도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남자는 여전히 별종 취급을 받고, 그런 남편을 둔 여자는 선망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육아체험기 출간이 활발한 것이 희소가치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그만큼 육아에서 남자의 역할이 커졌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다양한 형식과 내용 담은 육아체험기

아이의 얼굴이 제각각이듯, 아이가 자라는 양상도 천차만별이다. 그래서인지 아버지의 육아체험

기 역시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넓게는 대체로 에세이에 속하나, 내용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생생한 육아체험을 전하는 일기가 있는가 하면, 본격 에세이가 있고, 역경 극복기도 있다. 그런데 최초로 출간된 육아체험기는 그 형식이 이채롭다.

최정현씨는 만화에 육아체험을 풀어냈다. 《반쪽이의 육아일기》(여성신문사, 1992), 《평등부부 반쪽이네의 가족일기(1·2)》(김영사, 1996), 《반쪽이네 딸, 학교에 가다》(김영사, 1998) 등을 펴낸 최씨는 만화로 딸 하예린이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하는 재미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책으로 나온 것은 《반쪽이의 육아일기》에 선수를 빼앗겼으나 훨씬 먼저 씌어진 남자의 육아일기가 있다. 이문건의 《양아록(養兒錄)》(이상주 역주, 태학사, 1997)이 그것으로, 이 책은 16세기 조선조 사대부의 체험적 육아일기다. 특이한 것은 할아버지의 육아체험을 일기 형식에 담은 점이다. 마침 귀아살이를 하던 터여서 손자의 출생에 대한 조부의 기쁨은 배가됐다.

이문건은 손자의 출생과 신체적 성장, 병치레 등에 관한 소회를 한시 형태로 표현했는데, ‘손자의 울음소리(〈兒啼〉)’에는 손자의 안녕을 바라는 간절함이 깃들여 있다. “손자는 태어날 때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



경기도 과천시, 작업실을 겸한 자택으로 ‘반쪽이’ 최정현씨(40, 만화가)를 찾았다.

— ‘육아일기’를 그리게 된 동기가 궁금하다.

“《여성신문》 창간 때부터 만화를 그렸는데 처음에는 정치만평을 맡았다. 집사람이 아이를 낳자 신문사에서 ‘육아일기’를 만화로 연재하지 않겠냐고 제의했다. 시작할 때는 한달만 그리고 그만둘 생각이었다.”

— ‘가족일기’를 포함해 육아일기가 세종류나 된다.

“정치만평은 신문을 통독해야 하는 등 사회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반면, 육아일기는 애만 키우면 자동적으로 소재가 나와 작업이 한결 수월했다. 육아 분담의 고정관념을 깬 걸 작업에 들러붙었더니 평생해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육아일기를 그리며 느낀 점은?

“육아 자체에서 느낀 점이 많다. 평범한 직장인이 만화처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눈만 뜨면 아이 돌보기에 매달려야 하지만, 사회구조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도 육아는 참 소중한 경험이다. 동심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즐거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 반쪽이를 분단의 상징으로 기억하는 독자가 있다면?

“문제의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가정을 분단구조의 뿌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반쪽이에는 가부장제하의 가정에서 평등을 일깨우는 뜻이 담겨 있다. 최근 연재를 시작한 <DIY 시리즈—반쪽이의 똑똑똑딱>(《한겨레21》) 역시 같은 맥락이다.”

— 육아일기 붐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자식에 대한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은 충분히 기록할 가치가 있으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육아일기는 곤란하다. 애완동물 키우듯이 자랑에 그쳐서는 안되고, 육아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유아기 이후의 성장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정현씨는 “육아는 개인적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응애응애 예닐곱 번 울더니, / 그후론 울음소리 멈춰 들어보지 못했네. / 때때로 태어나던 날처럼 다시 울기 바라는 건, 다만 병이 있어 평안치 못해 그런가 걱정돼서지”

울음소리가 평상시와 조금만 달라도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런데 아이가 자폐아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모를 것이다. 최근 출간된 《아들아, 아빠 눈 보고 말해》(동아시아)에서 임기원씨는 아내에게 아들이 자폐아라는 통보를 받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과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자폐아 교육의 성공체험기인 이 책은 자폐아를 둔 여러 부모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독자의 반응은 그리 크지 않아

이강욱 교수(영남대 국어교육과)의 《젓병을 든 아빠, 아이와 함께 크는 이야기》(돌베개)에서는 두개의 대목이 인상적이다. 하나는 미국 유학중인 아내에게 보낸 아이 사진을 보고, 미국인 여학생이 했다는 말이다. “너는 너무나도 모질구나. 어떻게 이런 아이를 떼어 놓고 떨어져 살 수 있니?” 다른 하나는 분만과정을 리얼하게 묘사한 《분만실의 부모은중경》이다. 이 대목은 이 책의 압권이라 할 만하다.

아버지의 육아체험기에 인기 연예인도 가세했다. 개그맨 이홍렬씨의 《아버지 되기는 쉬워도 아버지 노릇하기는 어렵다》(중앙 M&B)는 나름의 ‘아버지론’을 펼친 에세이다. 지은이는 아버가 된 자신에게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본다. 《최수종의 아빠일기》(웅진닷컴)는 잡지 형식에 담은 육아 기록이다.

출간이 러시를 이루고 있지만, 아버지의 육아체험기에 대한 독자의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반쪽이의 육아일기들이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팔리고 있고, 인기인의 책이 유명세를 앞세워 반쪽 인기몰이를 했을 뿐 다른 책들의 호응도는 낮다. 성 역할분담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때문으로 보인다. 아직은 아이 돌보기가 엄마의 몫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듯하다. - 최성일 기자

“사회가 육아문제 책임져야”

공동육아운동을 펼치고 있는 정병호 교수(45, 한양대 문화인류학)는 아버지들의 육아 일기·에세이 출간에 대해 긍정적이다. 이런 책들은 아버지의 육아 경험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남성이 직접 체험을 통해 육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새겨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다. 아버지들이 육아에 참여하면서 온전한 경험을 한다고 생각한다.



육아가 아이에게 사회화 과정이라면, 부모에게는 재사회화의 기회다. 그간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도 손도 못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형적인 남성 중심의 문화가 가사 같은 사적 영역에서 남자들의 임무를 면제해준 측면이 있다.”

우리 현실에선 교수나 연예인 같은 전문직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교수는 반론을 편다.

“여유가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해하면 된다. 역설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직장에 묶여 사는지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하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은퇴 이후의 남아도는 시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정교수는 육아에 쓰는 시간을 일종의 ‘노년 준비 기간’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육아에 매몰되는 것 역시 경계한다. 육아가 시작되는 시기를 즈음해 진보적 인사가 보수주의자로 갑자기 변하는 경우가 적지않은 까닭이다. 또, ‘단란한 가정’이라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다.

“이른바 ‘정상적 가정’이라는 것이 점점 희귀해지는 추세다. 게다가 단란한 가정은 사회적 관계가 차단된 공간이다. 요즘처럼 전업주부가 가사에 얽매인 채 고립된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

정병호 교수는 부부가 육아에 함께 참여하는 것과 사회적 육아를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사회가 육아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젊은층이 일은 가장 많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은 가장 적다. 생산과 재생산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부부 또한 공히 육아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사회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

장영란 지음/400면/12,000원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식론의 기초로 삼는 감각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의 범위와 한계를 밝히고 지성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문제를 분석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적 체계와 논리를 설명하는 데 주 목적이 있으며,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그의 단편들을 하나로 모아 체계화하고 있다.

희랍 철학 입문

W.K.C. 거스리 지음/박종현 옮김/224면/7,000원

희랍 철학의 권위자인 박종현 교수가 번역한 희랍 철학 입문서. 고전이 전공 아닌 학부 수 강생들을 위한 강의안을 재집필한 것으로 평이한 서술을 통해 희랍 철학자들의 주장의 요지와 철학사적 큰 흐름에 접할 수 있도록 피하고 있으며, 분량은 그리 길지 않지만 희랍 철학의 진수들로 가득 차 있다.

빈켈만 미학과 그리스 미술

기정희 지음/192면/7,000원

이 책은 에로스와 감동을 중시하는 새로운 미술 관조의 방식과 미술작품의 기술에서 드러난 에로티시즘적 접근을 빈켈만 미학 연구의 새 관점으로 제시함으로써 그리스 미술의 발견자로 잘 알려진 빈켈만 미학을 해석학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새 관점에서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8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 천리안 phil6161